

이낙연 전 총리, 제3지대 연대 시사

“양당 기득권에 절박한 위기 의식 갖고 우리가 모였다”... 이준석·금태섭·양향자 등 신당과 연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9일 제3지대와 관련 “양당의 철용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밝혔다. 제3지대 캠프로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향자 국민의희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연대를 시사한 것이다.



이준석(사진 오른쪽부터)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국민의희망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향자 국민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와 조응천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 잇따라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저를 제일 먼저 불러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는다.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물 노릇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 류호정에게 들으시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양 의원을 △실업 △신년 △도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면서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한 제3지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 전 총리가 현역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최고위원을 맡았던 바 있다. 그는 “양향자의 정치는 실업,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행이 있는 정치”라며 “요즘 경제안보라는 개념도 양향자는 일찍 터득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곤 했다. 양향자는 시대에 훨씬 앞서는 사람이었다. 충분히 선도할만한 역량이 있다. 그래서 특히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안에서 개인 신념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향자는 그 일을 했다”며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일을 퍼스트무버로 제일 앞서나가는 것도 신념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양향자가 새 시대를 지도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행동 안하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의 말은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정치판에 드물 것”이라며 “조 의원의 마지막 말씀이 ‘부러질 지언정 구부러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양심으로 행동하겠다는 가장 비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조응천 같은 신념의 정치인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에 꼭 앞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달라”며 “지금은 견고한 기성정치의 벽에 누군가는 도전해서 구멍을 내야하는 시대”라고 요청했다.

또 “벽에 부딪치면 머리가 깨지고 손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상처 때문에 벽을 피하는데, 조응천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앞장서서 걸을 것”이라며 “저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기꺼이 조응천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내 혁신을 자처하

는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구성원이다. 이들 역시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 혁신이 필요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전 총리는 양향자 의원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상식’이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했는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것인가’라는 질문에 “혈액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원칙과상식에 묻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이준석·금태섭·양향자 등 제3지대 키맨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냐고 묻자 “네, 협력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건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협력해야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협력한다는) 대원칙 하에 누가 합류하는지 등은 차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

‘여기저기 덕지덕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읍면동별 2개 이내...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의결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 설치 ‘금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 1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에 더해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다.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차장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

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한다. 현수막 끝자리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시

“홀로그램 실증지원센터 유치”

민주 이춘석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춘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홀로그램실증지원센터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에서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홀로그램컨텐츠서비스센터와 XR소재부품장비개발지원센터 2개 전문센터에서 홀로그램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예타사업으로 진행된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 발굴과



다채로운 중소형 사업화 실증을 통한 홀로그램 서비스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홀로그램실증지원센터를 익산에 유치해 홀로그램 산업생태계를 선점하고, 중심지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실제로 홀로그램실증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00억 규모로 의결·확정됐다.

이 예비후보는 홀로그램실증지원센터 유치를 계기로 익산시에 있는 관련 기업, 연구소, 장비 등을 집적화해 단일 허브를 구축해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부안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상반기 군정 보고 청취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9일 2024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間に 걸쳐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래 의원은 ‘농

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민의 재산권 보호와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균형 있는 경제와 감시를 통해 부안 미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의회
-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 발로 뛰고 행동하는 공감의회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http://council.namwon.go.kr